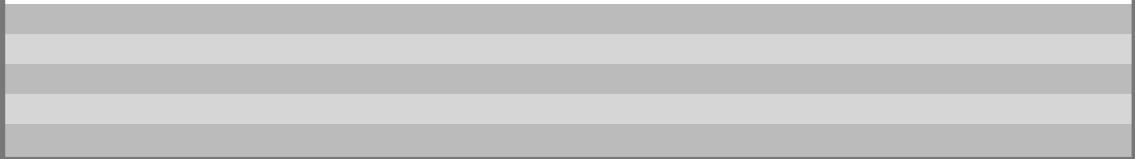


IV



팽이버섯



싱가포르

1. 시장개요	105
2. 유통동향	105
3. 소비동향	110
4. 수입동향	111
5. 통관 및 수입검사	112
6. 한국산 및 경쟁국 유통동향	116
7.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	117

1. 시장개요

- 버섯전문 생산·판매기업인 Everbloom Mushroom PTE LTD가 소유하는 버섯농장에서 유일하게 신선버섯이 생산되고 있음
- 규모가 크지 않아 싱가포르 내 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하여 대부분의 버섯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
- '09년 기준 싱가포르 기타 신선 버섯 수입량은 약 5천톤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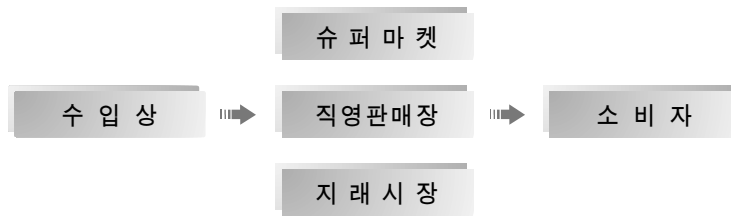
※ 싱가포르 팡이버섯 재배시설 현황

구분	농장명	세부사항	
1	Myco Farm 및 Everbloom Mushroom	주 소	9 Seletar West Farmway 5 Singapore 798057
		홈페이지	www.mycofarm.com.sg
		연 락 처	T : (65)6773-0377 / F : (65)6773-1766
		비 고	- 1980년 Mr. K,K.Tan 설립 - Myco Group 구성하면서두가지 상호 동시 사용 - Everbloom : Shiitake/Button/Oyster 등 - MycoFarm : Oyster, Willow 등 고가제품 - 생산량 : 약 60톤/월
2	Kin Yan Agrotech	주 소	220 Neo Tiew Crescent Singapore 718830
		홈페이지	www.kinyan.biz
		연 락 처	T : (65)6794-8368 / F : (65)6794-8372
		비 고	- 가족농장/교육농장 개념으로 운영(견학, tour 등 운영) - 소량/특수 상품 판매

2. 유통동향

■ 유통구조 및 경로

- 싱가포르 내 팡이버섯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구조를 띄고 있음










- 까루프, 자이언트 등 대형 할인매장에 별도의 버섯 전문 판매부스가 설치될 정도로 대량 판매되고 있음
 - 대형 슈퍼체인인 NTUC Fair Price, Cold Storage, Shop & Save에서는 채소류 판매부스에서 팡이버섯을 함께 진열·판매하고 있으며, 현지의 재래시장에서도 팡이버섯을 판매할 정도로 소비가 일반화되어 있음
- 싱가포르에는 유일한 농산물 도매시장인 파시르판장 도매시장(Pasir panjang Wholesale centre)이 운영되고 있으나, 한국과 같은 농산물경매·상장·청과법인 등과 같은 제도는 없음
- 도매시장은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Housing & Development Board(주택공사)가 설립 및 소유하고 있으나, 부류별 사업자에게 모든 상점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
 - 청소·건물 유지보수 관리를 제외한 일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매출액·거래품목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음
-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로 소비되는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
 - 대부분의 상인들은 직접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, 수입 후 도매상 또는 소매상, 슈퍼마켓 등에 직접 납품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음
 - 판매방식은 수의매매 또는 일대일 흥정에 따라 결정되어 도매가격이 없으며, 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나 부처가 없음

■ 타수입산 진출현황

- 말레이시아, 중국, 일본, 태국산 버섯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- 말레이시아산은 지리적 인접성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뒤를 이어 중국산, 태국산, 한국산이 차지하고 있음
 - 일본산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이 한국보다 낮음
- 주로 소비되는 신선버섯은 생표고버섯, 느타리버섯, 팡이버섯, 양송이버섯임
 - 생표고버섯은 주로 중국, 느타리버섯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, 양송이버섯은 중국,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

■ 유통현황

판매장소	유통현황
<p>재래시장</p>	<p>○ 유통량의 60~70%는 팡이버섯이며 20~30%는 태국산 양송이 버섯임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  </div>

판매장소	유통현황
Fair Pric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Pascar(자체 브랜드) 양송이버섯 : 유통량의 15% ○ Champ Fungi(말레이시아 브랜드) 팽이·양송이 : 30~40% ○ GreenPeace(한국산) 팽이버섯 : 20% ○ MycoFarm(싱가포르산) 팽이버섯 : 10% / 기타 (5~10%)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  </div>
Cold Storag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hamp Fungi : 유통량의 60%, 일본산 팽이버섯 15%, 일본산 만송이버섯 15% ○ 중국산 양송이버섯 10%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  </div>
Iseta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hamp Fungi : 유통량의 40%, 일본산 팽이버섯 : 30% ○ Cultured Greens 양송이버섯 : 30%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  </div>

판매장소	유통현황
Giant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hamp Fungi(말레이시아 브랜드) : 유통량의 30%, GreenPeace(한국산) : 30%, Chozone(한국산) : 20%, MycoFarm(싱가포르산) : 20% 
Meidi-Y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hamp Fungi, GreenPeace : 유통량의 60% / 일본 Air-flown 제품 : 40% 

【 '10. 10월 싱가포르 팽이버섯 판매가격 】



일본산 S\$1.55/200g



한국산 S\$2.25/3묶음



※ 태국산은 S\$0.85/200g, 중국산은 S\$0.7/100g임 ('10.7월 기준)

3. 소비동향

■ 소비현황

- 2008년 기준 싱가포르 1인당 버섯 제품 소비량은 1.79kg로 선진국 등에 비해 낮은 편이나 소비자들의 버섯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수요증가 등으로 향후 싱가포르의 버섯 시장은 2~3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- * 선진국별 1인당 버섯 소비량 : 호주 약 3.2kg, 캐나다 약 2.8kg, 중국 약 10kg, 독일 약 4.5kg

■ 품목별 구매동향

- 싱가포르 국민 소득증가에 따라 팽이버섯, 느타리버섯, 만가닥버섯(Hon Shimeji), 포토벨로버섯(Portobello mushroom)등 고품질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캔 제품과 같은 가공버섯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임
- 싱가포르는 외식산업이 발달되어 가정에서 직접요리를 해서 먹기보다는 외식을 많이 즐기는 편으로 외식업계에서는 이윤 창출을 위해 고가의 팽이버섯 보다는

품질이 다소 낮더라고 저가의 팡이버섯을 선호

- 표고버섯, 만가닥버섯(Hon Simeji), 느타리버섯은 중국식 튀김 또는 볶음요리, 양송이 및 만가닥버섯(Hon Shimeji), 팡이버섯은 스프, 양송이 및 포토벨로버섯 (Portobello mushroom)은 샐러드용으로는 많이 사용됨

■ 수입국별 선호도

- 한국, 중국, 일본, 대만산 팡이버섯이 매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음
 - 일본산은 고품질·고가 제품으로 인식되며, 한국산은 가격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음
 - 중국산과 대만산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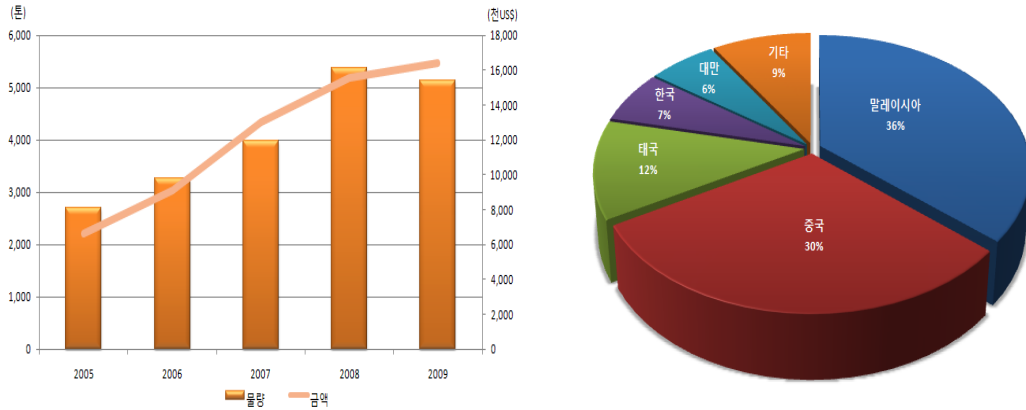
■ 향후 소비전망

- 싱가포르 국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유기농, 웰빙 열풍으로 버섯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

4. 수입동향

- 팡이버섯은 별도의 HS 코드번호가 없이 신선·냉장버섯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수입은 주로 말레이시아, 중국, 태국, 한국 등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
- 2009년 수입액 기준 말레이시아가 전체시장의 36%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30%로 그 뒤를 잇고 있음
 - 한국은 총수입액의 약 6%를 차지하여 태국에 이어 4위를 기록
- 2009년 기준 한국산 단가는 US\$2.1/kg로 주수입국인 말레이시아, 중국, 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

【 싱가포르 팡이버섯 수입추이 및 '09 주요 수입국 】



(단위 : 톤, US\$, US\$/kg)

구 분	2007		2008		2009			단 가
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	물 량	금 액	비 중(%)	
전 체	3,979	13,005,030	5,368	15,567,124	5,142	16,471,529	100.0	3.2
말레이시아	1,264	5,373,934	1,444	6,577,742	1,330	5,987,453	36.4	4.5
중 국	1,726	4,386,320	1,647	4,707,039	1,792	5,003,872	30.4	2.8
태 국	725	1,745,386	783	2,037,601	753	1,941,986	11.8	2.6
한 국	4	18,062	82	180,518	500	1,055,260	6.4	2.1
대 만	122	296,977	254	508,067	643	1,003,285	6.1	1.6
기 타	138	1,184,351	1,158	1,556,157	124	1,479,673	9.0	11.9

- ※ 1. 자료 : Global Trade Atlas, HS Code : 070959
- 2. 팡이버섯에 대한 별도의 품목분류는 없으며 기타 신선·냉장 버섯으로 통합 분류

5. 통관 및 수입검사

■ 관세 및 통관절차, 검사, 관련법규 등

- 싱가포르는 교역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교역 활성화가 최대 목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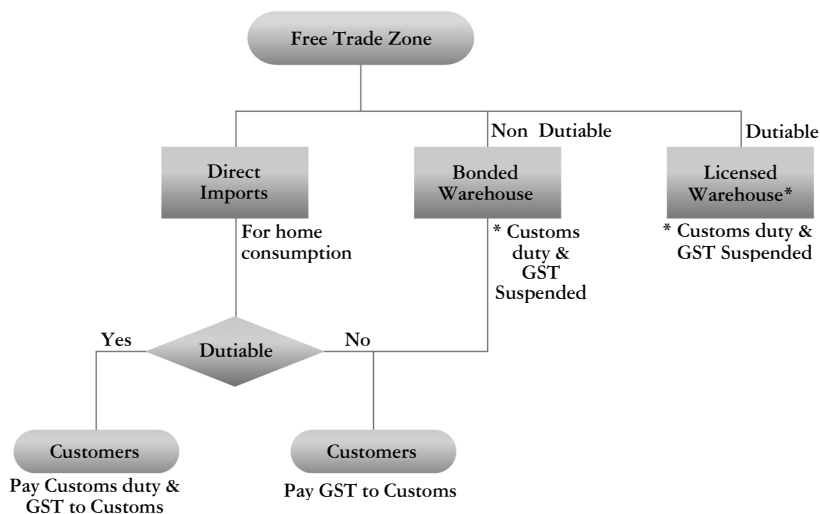
- 따라서 자유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수입관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수입에 대한 통제는 거의 없음
 - 이는 수입 품목의 대부분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, 인도 등 주변국가로의 재수출을 위한 용품이기 때문이며, 수입 증가가 곧 수출의 확대로 연결되는 대외 의존적 경제 산업 구조에서 기인
- 수입 대상 품목은 대부분 무관세이며, 일부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의 설정은 무역장벽 차원이 아닌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따른 정책적 고려에서 책정
- 수입 관련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음
 - 통합 식품안전시스템 (Integrated food safety system)
 - 식물관리법 (Control of Plants Act) 및 보조법령
 - 수출입관리법(Control of Imports & Exports Act) : 수출입허가 및 수입검사
 - 세관법(Customs Act) : 세관의 활동에 관한 제반 법규
 - 식품판매법(The Sale of Food Act) : 식품 제조, 유통 및 수입 검사 기준
- 싱가포르 과일/채소 수입은 “Control of Plants Act”의 적용을 받으며, 수입허가 및 검역 당국은 Agri-Food & Veterinary Authority (AVA)이며, 싱가포르에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비되어야 함

항 목	내 용
인허가 사항	- 사업자 등록 (관할기관 : ACRA) - 수입업자 신청 (S\$ 21.5, 관할기관 : AVA) - 신선과일 수출입면허 (S\$ 378.0/1년, 관할기관 : AVA)
구비 서류	- 원산지 검역당국의 잔류농약/화학물질 검사서 - 은행계좌 (수수료, 면허료 등 자동인출용) - 기타 서류 (위생증, HACCP 인증서 등) - 선적서류 (싱가포르는 관세가 없으나, 승장의 CIF 금액기준으로 7%의 상품&서비스 세금(GST) 적용함)

항 목	내 용
통관 절차	- 인허가 서류 구비 후 TradeNet System (www.tradexchange.gov.sg) 접속하여 수입허가 신청 : 온라인으로 Cargo Clearance Permit 발급 됨 - Cargo Clearance Permit에 표시된 검사장에서 수입서류 일체 및 수입검역 검사 실시 후, 출고조치 됨 (수시 검사 실시)

※ 자료 : AVA, TradeNet System

【 일반적인 수입경로 】



※ 자료 : Singapore Customs

■ 규제사항

- 싱가포르 검역당국에서 규제하는 농약은 총 114가지이며 잔류화학물질은 Mercury, Cadmium, Selenium 등과 같은 중금속 이외, 각종 antibiotic 잔류량, oestrogen 잔류량, mycotoxin 등도 포함됨
- 수입시 검역 및 통관 및 규제사항
 - 통관업무 흐름도 : 물품 도착 통보 (세관 → 수입자) → TradeNet System(EDI)을 통하여 통관 승인 신청(수입자 → 세관) → 통관 승인번호 접수 (세관 → 수입자) → 물품 수령 수입검사 → 통관완료

- 신선과일 및 채소의 수입 및 환적을 위한 허가가 필요하며, 2006년 10월 1일부로 각 신규 신청시 S\$21.5의 신청비를 내야함
- 통관 여부 및 관세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미 판정이 되어 있으므로, 세관에서의 검사는 Invoice상 품목과 실제 통관대상 품목과의 일치성 여부만을 간략히 검사하고 있고 실제로는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
- 일부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 사전 샘플링검사 또는 세관 통관 후 판매 전에 해당기관에서 별도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통관을 위한 검사는 매우 간단
- 모든 통관절차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, 일부 수입제한 품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며, 통관 수속 시 관련 승인번호만 통보함으로써 수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
- PSA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, 싱가포르 세관은 수입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입품목에 대한 통관처리를 종료하고, 수입자에게 물품 인수를 통보하게 됨에 따라 수입물품 도착 전 통관절차 종료
- 통관 수속이 간편하기 때문에 통관만의 별도 대행법인은 없으며, 모든 운송업체(Forwarding Company)가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
- 싱가포르는 무역 활성화를 위하여, 통관수속 및 수입검사가 요식행위처럼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, 수입검사는 무작위 샘플 사후 검사로 실시되며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,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매우 엄격
- 식물관리법(신선과일 및 채소의 수입 및 환적)에 의거, 수입 신선과일 및 채소는 금지되어 있는 살충제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며, 식품 법규의 9번째 부칙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나 FAO/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넘는 살충제 혹은 독성화학 성분이 있어서도 안 됨
- 신선과일 및 채소 수입허가는 매화물마다 AVA(Agri-Food&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)로부터 발급받아야 함

- 온라인 신청

<http://www.ava.gov.sg/FoodSector/FoodTradersAndEst/LicRegFoodTraders/index.htm>

■ 포장 및 라벨링 규정

- 싱가포르 위생법(Food Regulation Part III)에 따라 모든 수입 식품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
 - 라벨에는 제품명, 성분, 유효기간, 중량, 원산지표시, 수입자명 등이 필히 기재되도록 규정되어 있음
- 포장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현재 수입되고 있는 팡이버섯의 경우 한국, 대만, 태국산은 100g, 일본산은 200g 단위로 소포장
- 관련기관 : AVA(Agri-Food&Veterinary Authority), 수입수출부(Import and Export Division)

6. 한국산 및 경쟁국 유통동향

- 한국산 기타 신선 및 냉장 버섯류의 수입규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09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기타 신선 및 냉장 버섯류 전체 수입량의 약 6%를 차지
- 2009년 한국산 수입액은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년대비 485%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
 - 한국산 품질은 이미 싱가포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, 앞으로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다면 향후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
 - * 타 수입국인 중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6%, 대만은 97% 증가하였으며, 태국은 5% 감소

- 한국산 팽이버섯은 고품질로 인정받는 일본산과 비교하여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우수하여 현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나 비교적 저장 기간이 짧다는 것이 단점임

7.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

■ 바이어 의견

- 유통업체의 경우 단일 종류버섯으로만 판매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한국산 버섯을 공급받기를 희망
- 한국산 팽이버섯이 가격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판매향상이 기대됨
- 한국산 팽이버섯은 타국산에 비해 가격과 품질이 적정하나 저장기간이 짧다는 것이 한국산 팽이버섯을 취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

■ 수출확대방안

- 팽이버섯은 현지에서 인기 있는 신선·냉장 버섯 중 한국에서 대량생산 및 수출체계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품목임
- 한국 공급업체는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서 연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출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대형생산업체 또는 생산자단체여야 하며, 다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함
- 현지 수입사의 의견으로 볼 때, 한국산 버섯은 포장, 품질 면에서는 손색이 없으나 높은 판매가격 및 짧은 저장 기간이 문제임
- 한국산은 외양, 포장, 품질 면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Ginseng Enoki와 같은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

- 현지인들에게 한국산버섯을 알릴 수 있는 Promotion을 적절히 활용, 현지 대형 슈퍼마켓에서 직접 맛을 볼 수 있게 하고 차이점을 느껴볼 수 있게 하는 등의 현지 마케팅 또한 중요함
- 싱가포르의 타농산물 계약기간은 모두 출하시기별로 일정이 정해지는 게 일반적
이므로 연중생산이 가능한 팽이버섯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
안정적 물량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태국산, 호주산 모두 1년 단위로
계약하고 있음
 - 타 농산물인 사과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, 단감은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를
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시기에 안정된 공급량을 유지시키고자
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임

【 참고 】

■ 관련 웹사이트

- Agri-Food &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: <https://www.ava.gov.sg>
- 싱가포르 수입, 검역, 통관 관련 자료
- StatLink (Singapore Trade Statistics) : <https://statlink.iesingapore.gov.sg>
- 싱가포르 수출입 통계 자료
- Tradenet : <http://www.tradexchange.gov.sg> (수입신고)
- Singapore Customs : <http://www.customs.gov.sg>
- 싱가포르 관세청, 수출입 관리법, 관세법 등
- Singapore Statue Online : <http://statutes.agc.gov.sg/>
- 식품판매법(The Sale of Food Act): 식품 제조, 유통 및 수입 검사 기준
- Singapore Fruits and Vegetables Import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:
<http://www.singaporefva.com>
- 싱가포르 과일 및 채소 수입 수출협회

■ 관련 바이어 리스트

1. Champ Fungi Pte Ltd

- 담당자 : Valerie Chiu (sales & marketing manager)
- 주소 : 10 Admiralty St. North Link Building #01-74, Singapore 757695
- 연락처 : 65-6778-1892, Fax :65-6778-9192
- 홈페이지 : www.champ-fungi.com

- 취급품목 : 버섯, 신선 과채류 등
- 설립연도 : 2002년

2. Aries Fresh

- 담 당 자 : Shally Chin (Director)
- 주 소 : 10 wholesale Centre #01-417 Singapore I10010
- 연 락 처 : 65-6773-6273, Fax : 65-9684-0881
- 홈페이지 : www.ariesfresh.com
- 취급품목 : 버섯류, 고구마 등 유기농 과채류 취급
- 설립연도 : 1990년
- 기 타 : 신선 과채류 뿐 아니라 버섯스낵, 파인애플 스낵 등 가공식품도 생산·유통하고 있으며 연간 5,000톤의 물량 공급, 싱가포르 NTUC 납품 전문업체

3. Fresh Direct Pte Ltd

- 담 당 자 : Mr. Desmond Lee
- 주 소 : 17 Pasir Panjang Wholesale Centre, #01-119/120 (110017)
- 연 락 처 : 65-6775-4454, Fax : 65-6872-1911
- 홈페이지 : www.freshdirect.com.sg
- 취급품목 : 버섯류, 신선·유기농 과채류 등
- 설립연도 : 1999년
- 기 타 : 싱가포르 내 2개의 도매센터와 냉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0여 가지의 과일과 채소류 공급

말레이시아

1. 시장개요	123
2. 생산동향	123
3. 유통동향	124
4. 소비동향	125
5. 수입동향	126
6. 통관 및 수입검사	127
7. 한국산 및 경쟁국 유통동향	129
8.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	130

1. 시장개요

- 2009년 기준 버섯 총 수입량은 2천5백톤, 수출량은 1천4백톤이나, 팽이버섯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
- 팽이버섯은 기타 신선버섯으로 분류되어 수출입통계가 집계되고 있으며, 기타 신선버섯의 경우 2009년 94만불을 수입하였으며 지리상 인접해 신선도 유지 우위가 있는 태국 및 대량 생산 가능한 한국 등이 주 수입국임
- 말레이시아 버섯 주소비자는 전체인구 2천8백만 중 25%를 차지하는 7백만의 중국계임
 -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계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
- 냉장시설과 운송체계를 잘 갖춘 Jusco, Cold Storage/Giant, Tesco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며, 신선도 유지에 열세인 재래식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

2. 생산동향

- 시장에서 자국산 팽이버섯을 찾을 수 없고, 팽이버섯을 자국내 재배하거나 향후 재배 전망에 관한 정보는 없음
- 따라서 말레이시아 내에서 재배되는 느타리 버섯류를 제외하고 팽이버섯은 앞으로도 수입산에 의존할 것으로 보임

3. 유통동향

- 버섯 수입 전문업체 및 과일/채소 수입 전문업체에 의해 수입되어 대형할인 매장, 대형 요식체인점에 공급
- 구매력이 큰 대형 유통업체는 지정 전문 수입업체로부터 매주 견적을 받아 구매 여부 결정
- 한국산 팽이버섯, 새송이 버섯, 백일송이버섯(shimeji)이 “버섯모듬(RM7.90/250g)”으로 팔리고 있으나 팽이버섯 단일포장으로 판매되는 것에 비해 소비자 시선을 끌지 못함
- 신선도가 유지될 때 한국산은 100g당 RM1.49에 판매되다가 신선도가 떨어지기 직전에는 RM0.99로 할인 판매됨
- 기본적으로 포장단위는 100g 및 200g이며 포장단위에 의한 구매보다는 가격에 따라 구매결정
- 소비자가 요리 후 잔량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100gx3 묶음으로 포장 판매됨

【 말레이시아 팽이버섯 판매가격 】

(단위 : RM)

판매장소 원산지		Jusco		Tesco	
		한국산	태국산	한국산	태국산
포장	100g	1.99	-	1.49	-
	200g	-	-	2.89	-
	100g x 3		4.99	-	-



Jusco Permas Jaya 2010년 7월 28일
한국산 “물레방아” RM1.99/100g



* Jusco Permas Jaya 2010년 7월 28일
태국산 RM4.99/100gx3



Tesco Sri Alam, 2010년 7월 28일
한국산 “청록” RM2.89/200g



Tesco Sri Alam, 2010년 7월 28일
한국산 “청록” RM0.99/100g (할인가격)

4. 소비동향

- ▣ 팡이버섯은 타버섯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주 소비층은 중국계로 말레이계와 인도계 소비는 극히 미미함
- 대표적인 중국음식 중 스팀보트(야채, 버섯, 고기, 생선을 넣은 모듬탕), 빠꾸떼

(돼지갈비, 한약재 및 버섯을 넣고 끓인 탕) 등의 재료로 사용됨

■ 대형매장별로 팡이버섯 판매율은 상이함

- 중상류층이 주 고객인 Jusco의 경우 한국산 팡이버섯보다 고가인 한국산 새송이버섯(Eringi, King Trumpet Mushroom)이 잘 팔림
- 중류층 이하가 주 고객으로 변화하고 있는 Tesco는 한국산 팡이버섯이 잘 팔리고 있음
- 한국산 팡이버섯은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으나 Jusco에서는 100g당 RM1.99, Tesco에서는 RM1.49에 판매됨

■ 팡이버섯은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구매 가능한 저가 품목으로, 특히 건강식품이란 이미지로 서민 기호식품으로 성장

- 특히, 타 버섯에 비해 소비자들이 팡이버섯을 선호하는 이유는 씹히는 맛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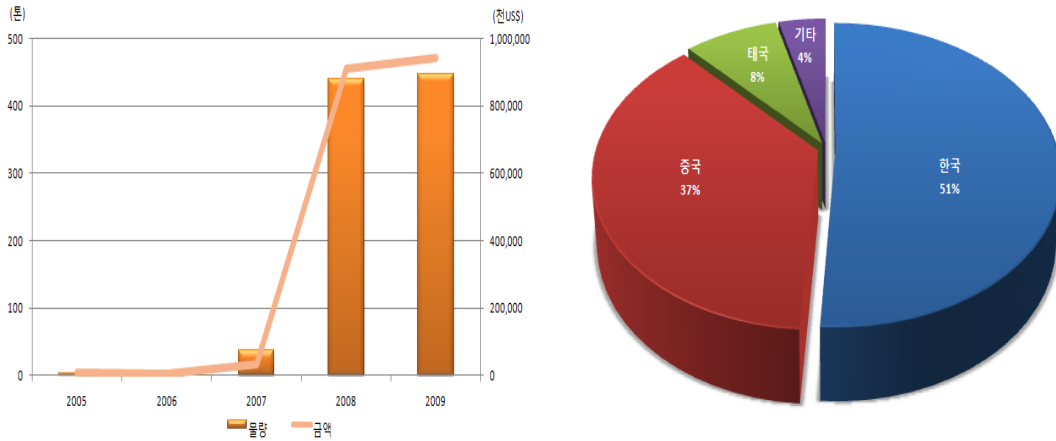
■ 한국산을 제외하고(한국산은 aT 또는 지자체 현지홍보 활동) 타국가의 홍보 활동은 없으며, 판매 장소별로 신선도가 떨어지기 직전 “프로모션”이란 형태로 할인 판매가 이루어짐

5. 수입동향

■ 팡이버섯은 별도의 HS코드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 신선·냉장버섯으로 분류되며 2009년 기준 수입액은 전년대비 3.6% 증가한 9만4천불임

■ 중국산 수입 비중이 37.0%로 높은 편이나, 중국산은 거의 송이버섯/느타리버섯이 주종으로 팡이버섯 비율이 적은 편으로, 한국산 및 태국산이 팡이버섯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

【 말레이시아 팽이버섯 수입추이 및 '09 주요 수입국 】



(단위 : 톤, US\$, US\$/kg)

구분	2007		2008		2009			단가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비중(%)	
전체	37	35,268	439	908,707	447	941,842	100.0	2.1
한국	-	-	184	578,540	171	480,579	51.0	2.8
중국	35	32,956	90	208,554	115	348,649	37.0	3.0
태국	1	576	141	70,434	154	74,980	8.0	0.5
기타	1	1,736	24	51,179	7	37,634	4.0	5.1

- ※ 1. 자료 : Global Trade Atlas, HS Code : 070959
 2. 팽이버섯에 대한 별도의 품목분류는 없으며, 기타 신선·냉장 버섯으로 통합 분류

6. 통관 및 수입검사

- 수입관세 및 Sales Tax가 없어 아세안 회원국/FTA 체결국을 불문하고 자유경쟁
- 팽이버섯은 한국과 FTA체결 이전부터 무관세 품목임

■ 식품안전 기준 중 중금속 및 멜라민 허용치

As < 6 ppm 비소

Cd < 1 ppm 카드뮴

Fl < 500 ppm 불소

Hg < 0.1 ppm 수은

Pb < 5 ppm 납

Aflatoxins B1 < 10 ppb 아플라톡신 (발암물질)

HCN < 50 ppm 청산염(Cyanide)

멜라민 : 분유 < 1 ppm, 기차 식품 및 사료 < 2.5 ppm

■ 농산물 수입검사제도는 비교적 느슨한 편이며, 잔류농약 검사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하고 병충해 검역은 농업부에서 수행

● 농업부 산하 Pesticide Board of Malaysia에서 농약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전면 사용 금지된 농약은 Parathion-methyl, Captapol, Chlordane, DDT, Folpet, Heptachlor, Sodium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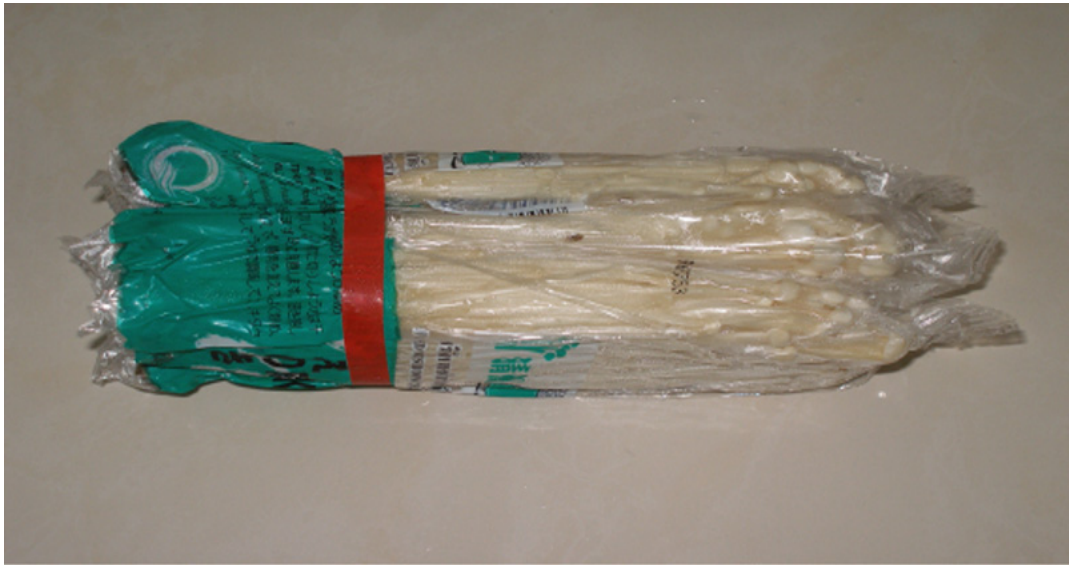
● Organophosphate pesticides 중 일부가 사용금지 또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으며, 승인이 났던 Methamidophos 와 Monocrotophos 농약 잔류량 문제로 사용 금지

- 검역관련 법령 : Plant Quarantine Act 1976 & Plant Quarantine Regulation 1981.

- 식품 잔류농약 관련 법령 : The Food Act 1983, Schedule 16 and Food Regulation 1985.

■ 현재 정부의 할랄제도 강화와 세계시장 주도의 의지로 버섯 수입업체도 할랄 증명서를 받아 시장 신뢰 추진 및 HACCP 인증서를 받아 대형유통업체 신뢰 확보

■ 표기언어는 영어 또는 말레이어, 실 중량 표시 외 규제 미미, 수입업체/수출업체 명기



* 특이사항은 태국산은 태국어 외 일본어를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고품질 이미지를 갖게 함

7. 한국산 및 경쟁국 유통동향

- 한국산은 백색 팽이버섯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
 - 주요 유통 브랜드는 “청록”, “물레방아”, “그린피스” 등임
 -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나, 태국산 대비 물렁하여 씹히는 맛이 덜하고 신선도가 떨어져 태국산 대비 품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
 - 태국산은 한국산에 비해 단시간, 단거리 운송과 진공포장으로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고 씹히는 맛이 좋아 한국산 대비 고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판매가격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 시장에서 한국산 대비 우위를 보임
- 중국산이 품질이 향상되고 한국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춰 시장에 재진입하기 이전까지는 팽이버섯의 경쟁국은 유일하게 태국으로 한정되어 있음
- 버섯 수입 전문업체 및 과일·채소 수입 전문업체에 의해 수입되어 70%는 대형

할인 매장, 대형 요식 체인점에 공급되며, 30% 정도가 도소매상을 통해 재래식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음

- 구매력이 큰 대형 유통업체는 지정 전문 수입업체로부터 매주 견적을 받아 구매 여부 결정
- 팡이버섯 시장은 한국산과 태국산으로 양분되어 있으며, 조사기간 현재 태국산 보다 한국산 취급 대형할인 매장이 많아 시장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

8.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

■ 바이어의견

- 우수한 품질의 팡이버섯 제공 및 향후 판매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국산 대비 포장상태를 개선(진공포장)하는 것이 필요
 - 말레이시아 시장은 프리미엄급 상품으로 인지되기 전까지 가격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품질의 차별화가 소비자에게 인식된 후 가격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

■ 수출확대방안

- 물류비용과 신선도 유지에서 우위를 점하는 태국산과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이미 확보한 시장의 유지 및 확대에 있어 물류비용절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임
 - 한국버섯수출사업단(KMC)을 통한 수출창구 일원화, 수출물량 및 가격결정, 공동마케팅의 실질적 이행으로 판매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높여야 함
- 2천8백만 인구 중 60%를 차지하는 말레이계의 식생활에 (팡이)버섯을 사용하는 음식이 부재하므로 판촉·홍보 행사시 팡이버섯을 말레이 음식에 접목시킨 음식 소개 필요